



황 로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學名 *Bubulcus ibis coromandus*

英名 Cattle Egret

수인 산업도로를 지나 비봉. 발안쪽으로 가는 대체로 한적한 서부간선도로의 곳곳에는 예년에 비해 흔치 않던 황로들이 심심찮게 눈에 뜨인다.

작열하는 태양을 거름으로 힘차게 자란 밝은 녹색 못자리의 벼와는 황로 특유의 적황색이 대조를 이루어 입체감이 날 정도로 눈이 부신다.

황로는 황새목 백로과에 딸린 여름철새로 백로와는 혈연이 같은 동족으로 먹이나 노는 장소 새끼치는 장소가 같다. 겨울철은 대만이나 필리핀, 말레이아 등지의 동남아시아에서 월동을 하고 백로가 도래하는 4월이 되면 북상하여 이땅을 찾는데 이동경로의 첫 관문이 되는 한반도 남쪽인 鴻島, 七發島, 小黒山島 등지에 일시 기착하게 되는데 섬해안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원래 황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희소한 새였었다. 60년대 들어 전라남도 해남군 방축리에서 번식을 시작하였고, 경상남도 거창군 서변리 하동군 감당리의 백로. 왜가리 번식지에서 소수가 번식을 하더니 충청남도 연기군 감성리, 경기도 김포군 포구곶리, 강원도 양양군 포매리 등지로 번식지가 북상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최근에는 한강 하류의 김포군과 해주산성 자락의 새로운 백로 번식지에도 수십쌍이 번식을 시작하였고 충청북도 증원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백로번식지에도 10여쌍이 번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도 지난 7월에 촬영한 것이다.

현재 황로는 남북지역 보다는 중부지역이 훨씬 서식밀도가 높는데 이런 추세라면 중부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될 것으로 즐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때 황로는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중세기의 귀부인들이 머리의 장식을 위해 이 황로 깃털로 치장하던 일이 유행했었는데 황로의 남획원인이 된다하여 엄격히 규제한 일도 있다.

황로는 물가나 논을 배회하며 작은 물고기, 수서곤충, 개구리등을 잡아먹고 사는데 번식기가 끝나는 9월부터는 특유의 적황색 깃털이 백색으로 변하였다가 차차 황색으로 바뀌므로 야외 식별에서는 혼동이 오기가 쉽다.

둥지는 나무가지로 엉성하게 접시형으로 지으며 한배에 청록색의 알(45mm×34mm)을 4개쯤 낳는데 포란기간은 21일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